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음 10월 1일) 제24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KT, SK, LG를 비롯한 관련 기업 부스를 둘러 다양한 홀로그램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 5G시대 이끌 산업 '선점'

익산서 국내 최초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가 포럼·토론회 열려
산업 발전 가능성·방향성 제시 육성 분위기 대내외 확산
기술 개발 통해 경제적 효과 기대, 신성장 기폭제로 활용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엑스포를 개최하며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를 이끌 홀로그램 산업 선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25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개막했다.
개막식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정현을 익산시장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 기업 관계자와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 퍼포먼스 공연, 각종 체험·전시행사가 진행됐다.
2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및 융복합 기술 활용 방

향과 사업화 실증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도 함께 열렸다.
전북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홀로그램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홀로그램 산업 육성의 선도지로서 전북도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홀로그램 산업 육성 분위기를 대내외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637억원, 취업유발효과 421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을 시작, 2027년까지 1817억8000만원을 투입해 5대 분야의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원천 기술개발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홀로그램 서비스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홀로그램 콘텐츠 신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지원 및 평가 장비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구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과 익산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부안의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술과 기업을 집적화하고 고도화하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내 최초로 열린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를 신호탄 삼아 전북을 세계 수준의 홀로그램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드론교육센터 부지 전북 최우선 검토"

LX, 이사회 간담회서 "많은 논란 빚어진 점 사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지난 25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서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전북 지역으로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지역에 세울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LX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생 노력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방안 추진

문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투명성 향상" 정시모집 비율 상향 조정... 구체적 비율·적용 시기 공개 안해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심화 등에 따른 불평등 발생 따라 해소 방안 집중 논의...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전환 추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대입제도 등 교육분야의 공정성 확립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대입제도와 관련해 유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 및 적용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자사고·특목고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발하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고원 양성, 연수 체계 혁신 등 일반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안방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도 집중 논의됐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고졸취업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재직 후 대학 학비 격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또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 안전·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